

01 교회소식

권능의 역사, 하나님 사랑의 표현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권능의 무안단물 23주년 기념 행사와 방송 선교 확대에 힘쓰고 있는 중남미 성도들의 소식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리즈

성경 말씀을 지켜 나가는 만큼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리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져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온전한 사랑에 이를 수 있다.

03 기획특집

영적으로 게으른 속성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변명하고 핑계 대기를 좋아할 뿐 아니라 자신이 행해 온 만큼, 쉽게 할 수 있을 만큼만 행하며 안주하고자 한다.

04 간증

치료와 응답, 축복 주신 주님

성결의 복음을 듣고 감명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믿음으로 구할 때 놀라운 치료와 응답, 축복 주신에 감사하는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만민뉴스

제989호 2023년 3월 19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권능의 무안단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23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축하공연



지난 3월 5일(주일) 오후 3시, 전남 무안군 해제면 소재 무안만민교회(호남지방회 소속)에서 권능의 무안단물 23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축하공연이 있었다.

서울지방회 회장 이미경 목사의 사회로 시작한 1부 감사예배는 호남지방회 회장 박형렬 목사의 기도, 서승원 집사의 특송에 이어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히 10:22)이라는 말씀을 증거했다.

강사 이복님 원장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마음을 닦은 참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랑 가운데 권능의 무안단물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비진리를 벗어나가되 사랑장(고전 13장)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여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부 축하공연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에서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과 부채춤 등 감동적인 공연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는 모세 선지자를 통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역사가 기록돼 있다. 2000년 3월 5일, 생활용수 문제로 고통받던 무안만민교회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통해 교회 앞 바닷가의 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다.

이는 성경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놀라운 표적일 뿐 아니라 수많은 성도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매개체가 되었으며, 성도들이 믿음으로 무안단물을 활용할 때 질병을 치료받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는 등 희한한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방송 선교 확대에 힘쓰고 있는 중남미 성도들

우리 교회 중남미 선교는 엔라세 방송을 통해 전파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가 초석이 되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또한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의 설교가 주일 오전과 토요일, 주 2회 방영돼 전 세계 스페인어 권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콜롬비아에 위치한 만민 중남미 선교 센터는 성결의 복음에 갈급한 영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라디오 방송을 통한 선교에도 힘쓰고 있다. 그 가운데 현지 성도들이 자원하여 거주 지역의 라디오 방송국과 접촉한 결과, 현재 5개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가 송출되고 있다.



▲ 3월 1일, 콜롬비아의 온사가, 도라다 등 여러 지역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출현했다.

페루 수도 리마를 비롯해 7개 도시를 커버하는 라디오 ‘펠리스’에서는 매주 토요일에, 세로 데 빠스꼬를 중심으로는 라디오 ‘알뚜라’가, 비자 리까를 중심으로는 라디오 ‘까리마르’가 방송하고 있다.

또한 에콰도르 뿌요시 라디오 ‘인페르 오세아니카’를 통해 매주 목요일에, 베네수엘라 산 펠릭시 라디오 ‘엘 사다이’를 통해서도 주 2회 방송돼 많은 영혼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있다.

라디오 방송 선교는 현지 지교회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여러 나라의 많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전파될 예정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18~19)

온전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혹여 두려움이 있다면 그만큼 사랑이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을 형벌이 없으므로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 주신 사랑을 알기에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했더라도 막상 고난 앞에서 주저하고 망설이게 된다면 이는 마음에 두려움이 남아 있다는 증거이니 온전히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 해도 결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 안에 맺혀진 사랑은 얼마나 진실하고 온전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두려움이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봄에 따뜻한 햇볕을 받아 대지에서 새싹이 돋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움트고 온전한 사랑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움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두려움은 범죄로 인해 임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류 역사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설해 주신 에덴동산에서 각종 나무 실과를 먹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았지요. 그런데 간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약과를 먹는 순간, 인류 역사의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17절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담은 죄로 인한 수치감으로 자기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며 나뭇잎으로 가리고자 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는데, 범죄하니 이내 부끄러움을 느낀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지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다정하고 부드러웠던 하나님의 음성이 죄를 짓고 나니 두려움으로 임한 것입니다.

결국 범죄한 아담은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대로(창 2:17) 사람의 주인인 영이 죽게 되었고, 풍요로운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지요.

그러면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가인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아벨의 제사만을 기뻐 받으시자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시기와 질투로 인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범죄한 가인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자 그제야 가인은 너무 두려운 마음에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청합니다.

이처럼 죄의 삯은 사망이요(롬 6:23),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므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범죄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만큼 두려움이 임합니다.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능력으로 베풀어지는 열 재앙을 보았습니다. 또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는 역사도 체험했지요. 험난한 광야 길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받았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자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모세를 향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 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시니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지 못했지만, 모세는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었고 그 마음을 닦아 악이 없고 성결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모세는 범죄한 백성이 진멸 당할 위기에 놓이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렸지요. 이처럼 출애굽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닦아 온전한 사랑을 이뤘기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와는 이상 가운데, 꿈 가운데 만나 주셨으나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와는 대면해 친히 말씀하실 정도였지요. 그가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했고 온 집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민 12장).

셋째로,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늘 성결케 했으며 잔칫날이 지나면 흑시 그 자녀들이 잔치를 즐기는 중에 죄를 범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하여 자녀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 힘썼지요.

그러나 욥이 이렇게 행한 이유는 두려움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욥은 재앙을 만난 후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욥 3:25)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으면서도 그 마음에는 ‘혹 내게 재앙을 주시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이뤄졌더라면 결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

<p>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p> <p>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p> <p>홈페이지 www.manminnews.com</p> <p>만민중앙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p>	<p>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p> <table border="1"> <tr> <td>주일 대예배</td> <td>1부 10:00 AM 2부 11:30 AM</td> </tr> <tr> <td>주일 저녁예배</td> <td>3:00 PM</td> </tr> <tr> <td>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td> <td>9:00 PM</td> </tr> <tr> <td>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td> <td>11:00 PM</td> </tr> <tr> <td>금요철야예배</td> <td>11:00 PM</td> </tr> <tr> <td>수요예배</td> <td>7:00 PM</td> </tr> <tr> <td>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td> <td>8:30 PM</td> </tr> <tr> <td>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td> <td>9:00 PM</td> </tr> <tr> <td>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td> <td>4:00 PM</td> </tr> <tr> <td>다니엘 철야 기도회</td> <td>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td> </tr> <tr> <td>새벽예배</td> <td>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td> </tr> </table> <p>※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및 관련 문의: 02-818-7236</p>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 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 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이재록 목사의 부흥성회 설교집 |

URIM BOOKS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해 말합니다(요 2:10). 공의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재앙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처럼 욥은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직접 체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나 사랑을 헤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성령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오해하며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을 참된 사랑의 차원으로 이끄시기 위해 연단을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게 된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요 42:5) 하는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연단 받기 전에는 전해 들은 지식에 의해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알고 섬겼지만, 이제 직접 만나고 체험하니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지요.

오늘날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죄가 대속되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기에 사랑이 임하는 만큼 두려움이 물러가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면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2. 두려움이 없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려면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성경 66권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가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 주고자 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해도 기쁜 마음으로 해 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그 자체가 행복하고 기쁩니다.

물론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지고 전에는 담대하게 행한 일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비록 모든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깨닫는 만큼 행해 나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행함을 보시고 마음에 감동함과 확신을 주십니다. 영적인 믿음을 주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진리대로 행할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 나가는 만큼 주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리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 집니다. 결국은 주님을 닮아가며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줄 수 있는 온전한 사랑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1~22절에 “사랑하는 자들이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구하게 되고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증표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으니(요일 4:10)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세상으로부터 쫓아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벗어버리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여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구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진리 가운데 행치 못할 때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하게 되고, 마음의 소원을 뚝뚝하게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들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소유한 것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기대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움이 없는 온전한 사랑을 이룬 자녀들이 무수히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더욱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획특집

영적 게으름의 특징은...



잠언 26장 15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말씀한 대로 게으른 사람은 음식을 눈앞에 두고도 입에 넣는 것이 힘들다고 먹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속히 영적 게으름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변화시켜 영적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1.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며 변명하고 핑계 대기를 좋아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변명하고 핑계 대기를 좋아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하라.” 하면 “전도하는 방법을 몰라서요, 성품상 수줍음이 많아서요.”라고 이유를 댑니다.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라.” 하면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하지요.

사실 순종하고자 한다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물어서 하면 되고, 지혜나 능력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핑계만 대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환경 탓, 주변 탓만 하다가 낙심하고 주저앉기도 하지요. 누군가 도와줄 것을 바라며 불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최선을 다해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잠언 20장 4절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거둬 들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 하리라” 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 주릴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음 밭을 개간하지 않으므로 백보좌 대신관 때에 주리게 됩니다. 상급도 없고 구원도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불같이 기도하며 부지런히 마음 밭을 개간함으로 옥토로 만들어야 주님께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죄악을 버리기 위해 힘쓰는 과정에서 쉽게 버려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성장 배경이나 환경 등을 핑계 대며 낙망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작은 것부터 버리기 위해 힘써 기도해 나가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02. 자신이 행해 온 만큼, 쉽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며 안주합니다

잠언 26장 14절에 “문짜이 돌쩌귀를 따라서 도는 것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으느니라” 말씀합니다. 돌쩌귀에 고정된 문짜이 움직임에 한계가 있듯이 편안함만 찾는 사람은 침상에서 구르면서 게으름을 피웁니다. 영적으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더 나은 모습을 향해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껏 자신이 행해 온 만큼만, 쉽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을 계속 침노해야 하는데(마 11:12) 어느 선에서 멈춰 버린다면 영적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자기 보기에 좋은 것, 유익 되는 것만 생각하고 스스로 고집을 부리니 그 자리에 머물러 더 이상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그동안 배운 지식적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의와 틀 속에서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누군가 말씀으로 자신을 깨우쳐 주려 하면 힘들어하고 움츠러들지요. 더욱이 신앙의 연륜이 있는데도 더 이상 발전하려 하지 않고 안주하니 물이 고여 썩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영적 성장이 멈춰 있으니 결국 퇴보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앙의 연륜 속에서 경험과 반복된 행함으로 얻어진 능력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신속히 영적 게으름을 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통해 날마다 변화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나 성도 (38세, 인도 델리 달루뿌라 지성전)

2015년 어느 날, 세계 목사님 한 분이 책 세 권을 주셨습니다. 그 책은 이재록 목사님의 『십자가의 도』, 『지옥』, 『믿음의 분량』이었지요. 저는 그 책자들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깨우쳐지니 너무나 행복해서 사랑의 주님께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을 꼭 만나게 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2016년 9월, 하나님께서는 뿌자 자매님을 저의 가계에 보내 주셨습니다. 델리만민교회 성도인 자매님은 당시 간호 대학생으로 달루뿌라 지역에 보건 지원을 나와 전도하게 된 것이었지요. 그녀는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며, 델리만민교회 청년 모임을 소개해 주었는데 그곳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후 청년 모임에 참석하려고 델리만민교회에 갔더니 성전 안은 찬양 소리로 가득했고 그 뜨거움에 제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설교 말씀은 이제껏 제가 들어왔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고 특별했으며,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명쾌하게 풀어주는 감동의 말씀이었지요. 그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 기도를 받은 뒤에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평소 저는 다리의 혈액순환이 잘 안되었는데 밤에는 통증으로 인해 잠에서 자주 깨곤 하였습니다. 밧줄이나 천으로 다리를 묶어야만 잠잘 수 있었지요. 그런데 당회장의 환자 기도를 받은 뒤에는 치료받아 통증이 전혀 없이 잠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치료의 주님을 만나게 되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과 당회장의 환자 기도를 많은 이에게 알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플 때마다 당회장의 환자 기도를 받게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치료받으면서 제게도 큰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이게 되었고 저는 모임을 할 때마다 델리만민교회 담임 김상휘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와 주셨고, 저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지요. 점점 사람들이 모이면서 2017년 12월, 달루뿌라 지성전이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남편도 당회장의 설교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가니 물질의 어려움도 해결되고 축복받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정직과 성실로 직업을 삼을 때 행통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2022년에는 최대 매출을 이뤘지요. 주교사의 사명도 맡아 아이들이 주 안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회장님께서 전해 주신 성결의 복음을 통해 저희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되었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영혼에게 성결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영육 간에 축복받는 길로 인도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과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양쪽 무릎 통증을 치료받았습니다”

오춘자 집사 (72세, 중국 1교구)



저는 오래전부터 양쪽 무릎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6월부터 통증이 심해져서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난간을 붙잡고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은사 집회 때 치료받아 간증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도 주님께 치료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2022년 11월 은사 집회를 앞두고 진행한 작정 다니엘 철야에 참석해 열심히 기도 하였지요. 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자만심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한 것들이 떠올라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1월 25일 은사 집회를 성령 충만하게 드리며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를 간절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무릎 통증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제가 난간을 붙잡지 않고도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었고, 무릎을 꿇어도 전혀 통증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저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의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무안단물 뿌린 후 고름 차고 발강게 부은 상처가 깨끗해졌어요”

2022년 초, 왼쪽 팔뚝에 사마귀 같은 것이 생겼지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에 그 부위가 가렵기 시작하더니 자꾸 손이 가서 다음 날에는 밴드를 붙였지요.

2023년 1월 2일 저녁, 다니엘 철야를 마치고 집에 와서 밴드를 뜯어보니 고름이 차고 발강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방현초 권사 (60세, 3대대 15교구)

저는 집에 있던 무안단물을 상처 부위에 뿌리고 잠이 들었지요.

다음 날, 상처 부위가 육신겨러 다니엘 철야 후 무안단물을 뿌리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자동응답서비스 환자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다음 날부터 상처가 꾸덕꾸덕해지고 나아지더니 깨끗해졌지요. 할렐루야!

저는 무안단물을 뿌린 후 이내 환부가 가라앉고 치료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신기했고, 자상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281-2468, 010-9773-701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어방동1099-2 JJ빌딩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010-6425-8705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령천서로 57 광명빌딩 7층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3927-7526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6320-5984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547-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영사면 향환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예천동 650-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장천동 팔마로11-5 3층 ☎061)745-1117, 010-66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청문로 129 향아빌딩 3층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망마로 10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4-5816,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령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6772-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거룡2길 53-1 2층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330-31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9636-797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릉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